

지필고사 없는 중1, 수행평가 점수가 궁금합니다

중1 학부모입니다. 자유학년제로 지필고사 없이 교과별로 수행평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나이스 기록을 확인해도 전 과목 모두 평가에 대한 점수나 ABC 등의 성취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수행평가 점수를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_ 이은지(41·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1 수행평가는 점수나 성취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중1 수행평가는 성취에 대한 점수나 성취등급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과정 중심의 평가인 만큼 모든 교과에서 기본적으로 중시되는 사안은 '수업 참여도'입니다. 그 뒤 과목별로 실기 시험, 실험 실습, 탐구 보고, 개별·모둠 활동, 말하기·듣기·쓰기, 독서 활동,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유형의 평가가 진행됩니다.

전북 근영중 조은경 수석교사는 "2, 3학년과 달리 중의 경우 수행평가를 점수화하지 않는다. 단, 평가에 대한 성취 수준을 기록해야 학생 개개인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으

므로 교사가 개인적으로 A·B·C, 혹은 상·중·하 등의 등급을 매길 순 있다. 과목별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발표한 내용을 두루 살핀다. 예를 들어 평가 유형에 따라 해당 평가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충실하게 준비했는지, 핵심 주제를 올바르게 짚어내는지, 발표할 때의 태도는 어떠한지 등 다방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사 나름대로의 기록을 하는 식이다. 그 뒤 평가 내용을 학기말 학생부 교과 영역 성취 기준에 '서술형'으로 기재한다"고 전합니다(표, ㉔)

과목	학습 영역	영역 성취 기준
영어	말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특기를 주제로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쓰기	개인의 경험을 주제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특기에 관해 짧고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
	수업 참여도 및 포트폴리오	발표 및 과제 제출을 통해 수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배운 내용을 요약해 기록하는 수업 일지를 작성해 자신의 학습을 돌아볼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언어 형식을 활용해 자신을 자세하게 소개할. 주어진 표현과 목적에 맞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대해 한 가지 이상의 근거를 제시해 유창하게 말할. 제한된 시간 안에 우수한 발화 능력으로 청자의 이해도를 높임. 자신의 관심사와 특기에 관한 글쓰기 활동에서 다양한 이유를 제시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완성할. 제한된 시간 안에 시제를 잘 구별하고 중요 표현을 활용해 유창성과 내용 면에서 우수한 글을 작성할. 수업 태도가 훌륭하고 발표력이 우수하며 다양한 수업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배운 내용을 요약해 기록하는 수업 일지를 성실하게 자세히 작성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영역별 학습지 활동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MORE TIP

중1은 학기말 학생부 교과 영역에 기록된 자녀의 과목별 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의미가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교과 담당 교사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 교사는 "교과 특성상 연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멍이 생겨 누적되면 다음 학년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학생부 내용을 살핀 뒤 문의할 사안이 있다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nni@naeil.com

정시 지원 시, 수능 한국사는 응시만 하면 되나요?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 한국사 영역의 등급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정시 모집에서는 한국사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수능 한국사 영역에 응시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등급에 따라 가점이나 감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_ 송소영(42·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필수 응시 영역이며, 대학에 따라 가감점 혹은 반영 비율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표도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평가 방식의 한국사 등급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영역에 포함돼, 주요 대학의 경우 '한국사 3~4등급 이내'를 최저 기준으로 요구합니다. 반면 정시에서는 대학에 따라 전체 총점에서 한국사 등급별 점수를 가감하거나 수능 반영 비율에 한국사를 포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2 정시 모집 요강 기준으로 서울대의 경우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고 4등급은 0.4점, 5등급은 0.8점을 감점합니다.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동국대 등도 한국사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를 200점 기준으로 제시하지만, 표면상으로 보이는 등급 간 점수 차와 달리 실제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대구 경신고 허준일 교사는 "대학별 환산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모집 요강에 제시된 등급별 점수만 보고 불리하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5등급 이하라면 상황이 다르다. 정시에서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지원자 간 점수 차가 미미해 한국사에서 감점을 받는다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대학마다 다른 한국사 반영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MORE TIP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의 문항 수는 20문항으로, 50점이 만점입니다. 50~40점까지는 1등급, 39~35점은 2등급 등으로 등급 간 점수 차는 5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것에 무게를 뒀,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된다"고 전합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